고창군, 죽림 선사마을 개장

고인돌 유적 · 청동기 시대 생활상 등 선사문화 학습 · 체험장 등 갖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고인돌유적과 함께 청동기시대 생활상 등 선사문화를 재미있게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체험장이 고창군(군수 박우정)에 마련됐다.

고창군은 고창읍 죽림리 고인돌유적지 내에 '죽림 선사마을'을 조성해 개장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선사마을 내에서 열린 개장식에는 박우정 고창군수, 이상호 군의장, 이호근 도의원,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죽림 선사마을'은 국비 21억을 포함 총 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2년부터 조성을 추진했다.

군은 역사·문화적 우수성과 뛰어난 학술적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유적을 찾는 탐방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편익·체험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전북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죽림 선사마을 조성 등 고인돌유적지 정비 사업을 진행해 탐방객에게 체험 공간 등 편익공간과 후세에 대한 역사·문화적 산 교육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죽림 선사마을 체험장은 28,000㎡ 부지에 체험관, 체험동, 체험움집 7개소, 체험공간 8개소가 조성됐다.

체험관과 체험동에서는 움집체험, 도구만들기체험, 농작물체험, 도깨비바늘체험, 사냥체험, 망루체험, 불피우기체험 등의 무료체험과 예약을 받아 운영되는 선사인 복장체험, 돌화살촉·반달돌칼 만들기, 청동기시대 토기만들기, 고인돌형식 탁본체험, 고인돌 종이접기와 같은 유료체험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됐다.

청동기 시대의 마을을 재현한 죽림 선사마을 체험장은 어린이와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유익한 체험학습장이자 고인돌박물관과 고창읍성, 고창갯벌, 선운사도립공원, 상하농원 등 지역 관광명소와 함께 꼭 들러볼 곳으로 벌써부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유네스코 고창 고인돌유적을 비롯해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은 오랜 역사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자랑스러운 고장"이라며 "죽림 선사마을이 선사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개발과 역사·문화적 체험을 제공하는 교육장으로 세계거석문화 중심지역과 선사문화관광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조병용선생추모 남원 국제 검도대회

오는 17일~19일 까지

초여름의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검도인들의 열정으로 가득할 "제24회 조병용선생 추모 남원 오픈 국제 검도대회"가 오는 6월 17일(금)부터 6월 19일(일)까지 3일간 사랑과 충절의 고장 남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일본, 세르비아 등 6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초등부와 청소년부, 여자부 일반부 등 단체전 9개부와 개인전 8개부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펼쳐진다.

한국 검도계의 거목인 조병용 선생을 추모하고, 국내 최고의 검도대회 중 하나로 손꼽히는 국내 유일의 국제대회인 조병용 선생 추모 검도대회는 2015년 대회부터 국제 대회로 승격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검도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남원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국제 대회로 개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남원시 검도회에서는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일본 히오끼시 검도회와 교류전을 실시하였고, 상호답방으로 금번 대회에 일본 히오끼시 선수단 16명이 참가한다.

특히, 유럽의 세르비아 및 네팔, 베트남, 대만 등 총 5개국 70여명의 해외선수단이 참가하여 세계속에 전라북도와 남원을 알리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 주생면 유리온실 BJ멜론 정식 한창

여름 휴가철 7월말 에서 8월초 수확 목표… 당도 일반 멜론보다 월등히 높고 맛 좋아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농업회사법인 ㈜BJ멜론 첨단 유리온실에 멜론 정식이 한창이다. 올해 재배할 품종은 여름철 재배에 알맞고 당도가 높으면서 어린아이도 먹기가 부드러운 얼스버킹검으로 여름 휴가철인 7월말에서 8월초 수확을 목표로 하고 있다.

㈜BJ멜론은 당도가 평균 15브릭스로 일반 멜론(13브릭스)보다 월등히 높고, 스푼으로 떠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고 향이 뛰어나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되는 멜론은 껍질 근처까지 먹을 수 있다.

이처럼 멜론 당도가 높고 맛이 좋은 것은 생산과정을 전자동 컴퓨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의 결과이다.

농식품부에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BJ멜론 사업장에서는 미리 도입하여 일사량을 측정해 보온과 환기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질소·인산·가리·철분·마그네슘 등 필수아미노산을 혼합한 영양분을 자동으로 공급한다.

㈜BJ멜론은 전년도부터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실험동을 운영하고 있다.

실험동에서는 여름철 재배에 알맞은 품종인 메로니카 600주를 대상으로 비료농도와 적심위치(열매를 맺는 꽃의 위치)에 따른 성장속도와 당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

㈜BJ멜론 박윤정 관리과장은 "3년째를 맞은 올해 목표는 품질안정과 고급 명품멜론 생산이다"며 "국내에는 양액재배 품질관리 자료가 없어 어렵고 힘들지만 남원멜론이 전국 최고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고품질 남원 명품멜론 생산을 위해 지역특화품목 및 시설현대화를 통해 면적확대 및 시설현대화 지원 및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기술 전파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우·풍·자 재능나눔'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소장 김종균)가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재능 나눔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우.풍.자(우리 풍선으로 자원봉사해요)' 프로그램이 선정돼 오는 10월까지 고창오쇼 프리마켓에서 1365자원봉사포털 캠페인 및 풍선아트 부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도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봉사활동은 20여명의 지역 청소년이 지난 2014년과 2015년 풍선아트 교육 후 올해는 본격적인 재능나눔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청소년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자원봉사와 고창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고 지역 복지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김종균 소장은 "기관과 자원봉사단체가 연계하여 서로의 재능을 나누고 수혜자와 봉사자 모두가 함께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사랑 심는 봉사를 전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부실시공 · 안전사고 예방 읍면 합동 점검

40개소 공사 현장 대상 안전관리계획 · 시설물 구조안전성 · 근로자 건강관리 · 안전시설 설치 등

임실군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건설공사 현장 군·읍면 합동 안전점검에 나섰다.

군은, 올해 추진 중인 농어촌도로,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축분야, 소규모 개발사업 등 40개소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 시설물 구조안전성, 현장 근로자 건강관리를 비롯한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체계 및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를 계기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공사 및 노후 교량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현장은 즉시 시정방안을 마련해 안전한 임실군 만들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로컬플러스

남원시립어린이합창단 정기공연

남원시에서는 오는 6월 11일 오후3시에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남원시립어린이합창단의 정기공연을 열 계획이다.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 음악회'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18번째 공연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님이 오시는지', '하늘 나라 동화', '산타루치아'를 포함한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 가곡, 동요, 세계민요 등 다양한 분야의 16곡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테너 박진철, 바순 송선제 등이 특별 출연하여 공연의 흥미를 더해줄 계획이다.

남원시립어린이합창단은 "꿈을 향한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슬로건으로 2006년에 창단되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차례 각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으로 찾아가는 음악회와 정기연주회를 통해 동요, 가곡, 민요,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남원시립어린이합창단이 그동안 준비하였던 곡들을 펼칠 수 있는 공연이 열리게 되어 기쁘다. 어린이합창단은 남원의 주요 행사 및 대외적인 행사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문화사절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더 성장하고 사랑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

임실군은 오는 9월까지 폭염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올 여름 평균 기온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높다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안전관리과, 주민복지과,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를 주축으로 T/F팀을 구성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전광판, 마을스피커 등을 통해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파한다.

또한, 폭염 건강피해 감시체계를 가동해 온열질환자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한 즉각적인 보고 및 응급처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폭염취약계층인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안부전화, 폭염 대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냉방기를 갖춘 경로당 및 읍·면사무소 38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임실=진홍영 기자

남원도통지구대 놀이터집중순찰

남원경찰서(서장 박훈기) 도통지구대는 9일 여성 안전 치안 관련 안심 순찰활동을 통해 어린이, 여성, 노약자 출입이 많은 놀이터 주변을 집중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놀이터 CCTV 및 공중화장실 주변을 시설물 점검을 통해 여성 안전 치안에 총력을 기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순찰 중 유치원 원생 상대 현장에서 경찰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통지구대 경위 공풍용은 순찰 중 어린이들 야외 현장 학습하고 있는 시간을 이용 어린이 교통안전 및 어린이 유괴 사건 예방 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등 지구대에서 홍보용 사탕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등 우리지역 1310호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 상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치원 선생님들은 경찰관서 방문 교육을 현장 순찰 도중 직접해 줌으로 인하여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아주 좋다고 하며, 경찰관들과 함께 사진 촬영함으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했다.

도통지구대 곽 대장은 최근 이슈 되고 있는 여성 안전 치안과 관련하여 어린이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순찰을 통해 협력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공감치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